

직업훈련기관 ‘혈세 빼돌리기’ 눈감나

광주·전남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잇단 적발 지원 프로그램 느는데 고용청 지도·감독은 ‘제자리’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직업훈련 위탁교육기관과 사업주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되면서 관리·감독해야 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직업훈련기관은 총 206곳으로, 노동부의 평가를 거쳐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기관은 8곳에 불과했다.

이에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도 43곳에 이르렀고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하는 C등급(43곳)·D등급(28곳)·E등급(17곳)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허위 수령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직업훈련기관이 어린이집 14곳의 보육교사 직무교육과정(수료시간 10일 40시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1곳당 60만~200만원 등 총 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정황을 확보, 어린이집 100여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미 관련자 150명을 입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수강 시간을 부풀리는가

하면, 지정된 훈련시설에 가지 않았음에도 훈련시설에서 수강을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앞서, 광주 경찰은 직업훈련 시간을 부풀리거나 대리 수강을 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5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직업훈련 위탁교육기관 대표 7명 등 117명을 입건하는 등 보조금을 멋대로 빼돌린 직업훈련기관 등을 잇따라 적발한 바 있다.

경찰에 적발된 훈련기관의 경우 C·D·E 등급을 받았거나 이에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으로 드러나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감시해야 할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이 수천개에 달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감시 인원도 업체들의 불법 보조금 수령 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지방노동청 관할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은 모두 4676개로 이 중 기관 위탁 훈련은 3461개, 사업주 자체훈련 967개, 위탁훈련과 자체훈련을 병행한 과정은 248개 등에 이른다.

하지만 지도·감독받은 고작 6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지난해 현장 감독을 나간 과정도 전체(4676개)의 27.8%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원 한명이 779개 프로그램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훈련 진행 상황이나 실패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누군가의 신고가 없다면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없다는 얘기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에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명목으로 지출된 보조금은 138억원(사업장 8051곳·10만17명)으로 전년(120억원·사업장 7941곳·9만6282명)에 비해 15%(18억원) 늘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3 달뜨기 21:47
해질 18:34 달지기 08:32

산불조심!
제주도 남쪽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 많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흐림	5/9	보성	흐린 뒤 맑음	3/10
목포	흐림	4/7	순천	흐린 뒤 맑음	6/12
여수	흐린 뒤 맑음	6/11	영광	흐림	3/8
나주	흐림	4/10	진도	흐림	4/7
완도	흐림	4/9	전주	흐림	4/9
구례	흐린 뒤 맑음	3/11	군산	흐림	4/7
강진	흐림	3/9	남원	흐림	3/9
해남	흐림	3/9	홍산도	흐림	5/6
장성	흐림	3/9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2.0~4.0
남해 앞바다	북서~북	1.5~2.5	북서~북	3.0~5.0
남해 서부 먼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1.5~2.5
남해 서부 먼바다(서)	북~북동	1.0~2.5	북서~북	2.0~4.0

◇생활지수

수면	80
운동	70
빨래	70

◇주간 날씨

날짜	10(화)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날씨	☀	☀	☁	☀	☀	☀	☀
기온	-4/3	-2/10	-1/12	1/13	3/14	3/14	3/16

U대회 앞둔 광주경찰 기초질서 바로 잡는다

4개월동안 이륜차·주정차 등 범규위반 집중단속

광주 경찰이 본격적인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기초질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단속을 시작했다.

최종현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취임하자마자 ‘범시민 교통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을 내건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점에서 조만간 불법 주·정차 및 신호위반 등 기초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의 시작은 이륜차 위반 행위다.

16일부터 사고 다발 지역을 ‘이륜차 질서확립 존(Zone)’으로 지정하고 4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이게 된다.

지난해 이륜차 범규위반 단속 건수는 5726건으로 전년(6474건)에 비해 줄었지만 보도침범(2013년 24건→2014년 51건), 난폭운전(65건→71건), 불법부착물(22건→26건) 등 주요 위반 사례는 증가세라는 점에서 단속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륜차 단속에 이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맞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단속 계획을 마련,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단속 뿐 아니라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치안 활동도 병행한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차량정체가 생길 때 경찰이 ‘제때, 제 장소’에 출동하겠다는 취지로 교통불편 신속대응팀을 출범했다. 광주경찰에 신고된 교통불편 사례는 지난해 2만3941건으로 전년 2만2810건에 비해 4.9% 증가했다.

경찰은 계수 4거리·광천 4거리·백운교차로 등 교통체증이 빈번한 주요 교차로 10곳에 모터사이클 대원 12명으로 구성된 교통불편 신속대응팀을 배치했다.

미흡한 교통시설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교통 시설물 정비에도 나선다.

경찰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계림 5거리, 동부소방서 4거리 등 파손된 신호기 78개소 ▲서문대로, 송암고교 교차로 등에 생긴 포트홀 161개소 ▲안전표지판 15개소·도로 부속물 43개소 등 주요 교차로 3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시설 정비·보수 작업을 할 예정이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토요 재활용 장터 북적
지난 7일 오전 광주시 서구 쌍촌동 무라카야마에서 ‘재활용 나눔장터 보물섬’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장터 수익금은 유니세프 등에 전액 기부 된다.
/최해빈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꽃샘추위’... 서해안 눈소식도

울 들어 가장 포근했던 주말이 지나고 봄기운을 시샘하듯 광주와 전남엔 ‘꽃샘추위’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9일 광주·전남지역은 중국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으며, 서해안지역은 밤 사이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8일 예보했다.

이날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바람이 강하게 불고 전남보다 낮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다소 쌀쌀하겠 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6도, 낮 최고

기온은 7도~12도로 서해안 지역엔 밤 사이 1cm 미만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찾아온 ‘꽃샘 추위’는 10일 절정을 이루겠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영하 2도, 낮 최고기온도 0도~5도로 평년보다 5~8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다. 또 일부 내륙에선 낮 한때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

추위는 오는 11일까지 이어진 뒤 점차 평년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이달부터 3% 인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이 이달부터 올랐다. 지난 4년간 동결된 이후 보육료가 오른 것은 처음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단가(부모지원 보육료)가 3월부터 3% 인상됐다. 월 1만원 안팎 오른 것이다.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영유아 보육료는 2011년 이후 2014년까지 4년간 묶여 있었다.

해수욕장 쓰레기 버리면 최고 100만원 과태료

앞으로 해수욕장에서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양치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8일 해수욕장의 쓰레기 투기에 대해 최고 5만원까지 부과하던 과태료를 앞으로는 최소 5만원 이상 최고 100만원까지 몰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 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합뉴스

2000만 원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령고등학교 옆)